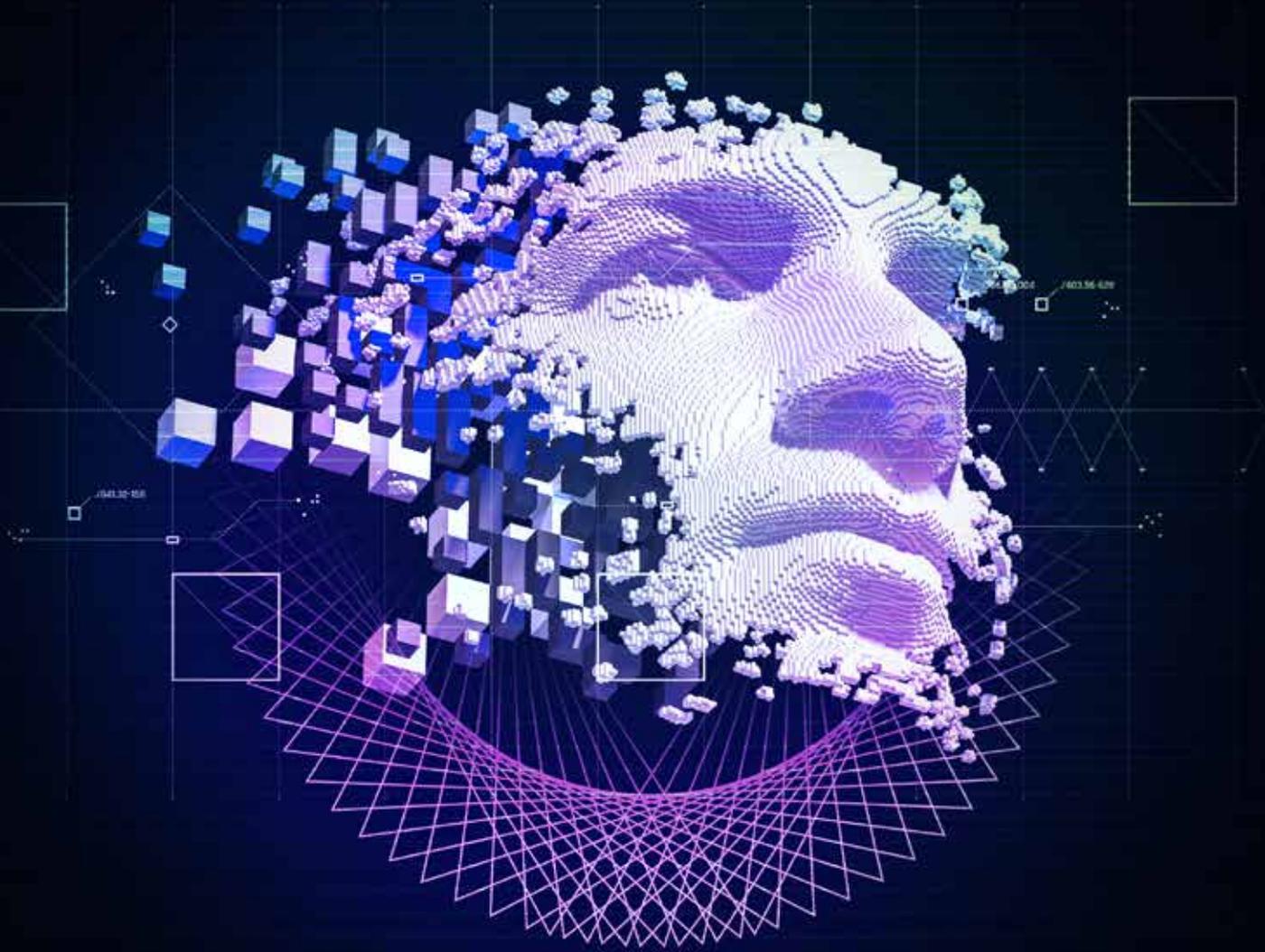


Deloitte.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성형AI 적용 및 규제

Centre for Regulatory Strategy

2024년 02월
Deloitte Insights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리더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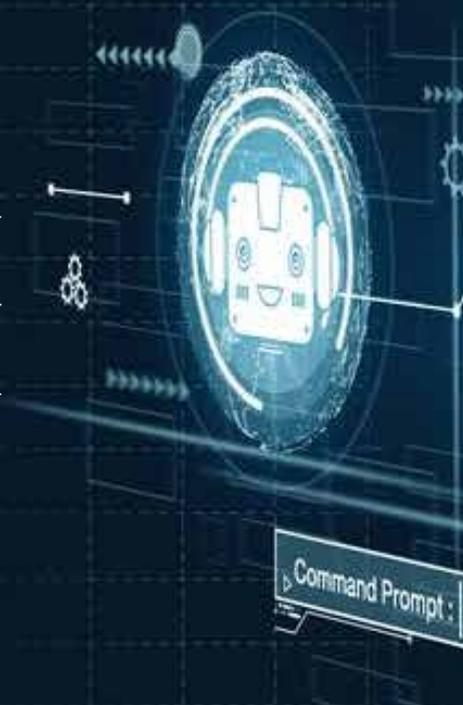


장형수 파트너
금융산업 성장전략 부문 리더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규제전략센터의 '아태지역 생성형AI 적용과 규제'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생성형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이러한 신기술 도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효율성 향상과 단순화, 그리고 고객 경험 최적화에서 잠재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투명성과 정확성, 편향성과 지적재산권 및 규제 침해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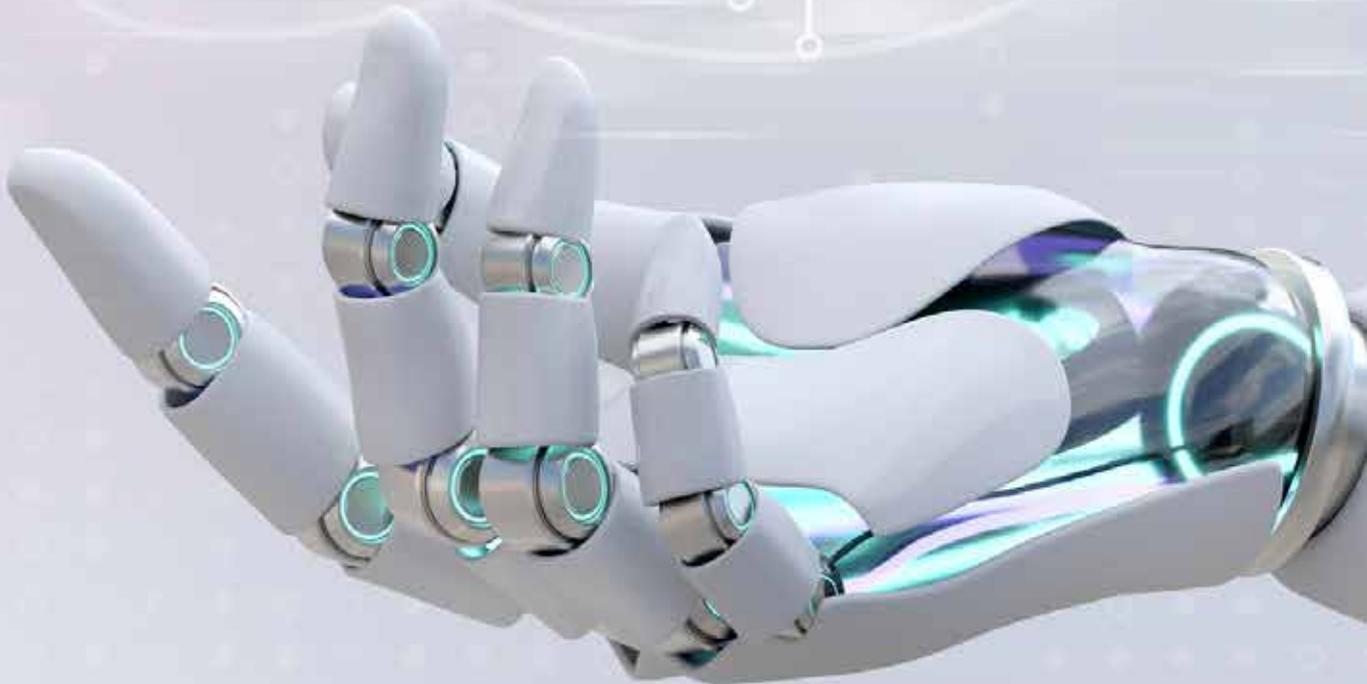
딜로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통해 생성형AI를 도입하려는 금융회사가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자연어 처리(NLP) 모델과 같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오픈 AI(OpenAI)의 챗지피티(ChatGPT),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Bing AI 챗(Bing AI Chat), 구글(Google)의 바드AI(Bard AI)와 같은 도구를 통해 대중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호기심과 동시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용자가 AI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산업(FS)를 비롯한 많은 산업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 다수의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규제 및 입법 기관은 AI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위험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2022년 딜로이트 글로벌의 '금융산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용' ([Trustworthy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e](#))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아시아 태평양(AP) 지역의 많은 규제 기관은 아직 인공지능 원칙(AI principles)에 대한 자문 및/또는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상당수 입법 및 규제 기관은 금융 산업에서 AI 도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AI 기술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연구해왔다. 이번 후속 보고서에서는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AI 사용과 관련된 위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재 규제 환경, 향후 이 분야의 입법 및 규제에 대비해 금융 회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본다.



1부.

기존 AI vs 생성형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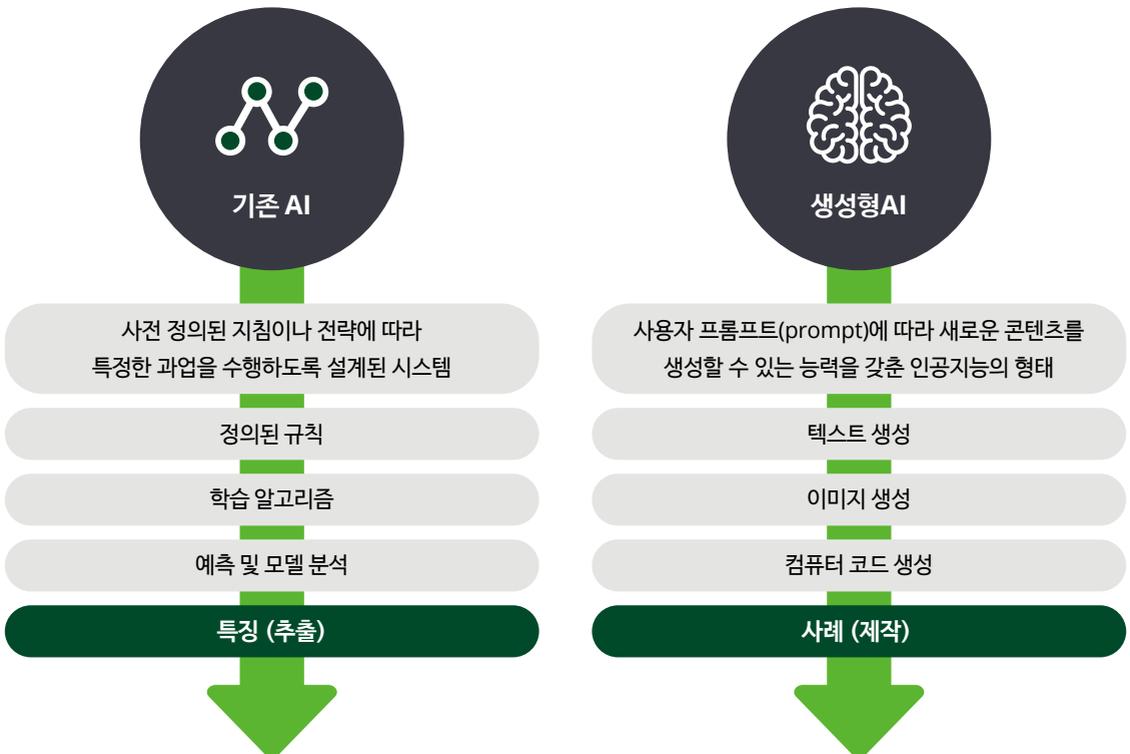
지식 재충전: 기존 AI와 생성형AI의 차이에 대한 이해

기존 AI는 사전 정의된 입력 세트를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이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고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AI 기반 챗봇을 활용한다. 기존 AI 기반의 챗봇은 자주 묻는 질문을 처리하는 데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챗봇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 기반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

생성형AI는 인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텍스트 작성, 코드 생성, 오디오 생산, 이미지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포함하는 생성형AI 도구들은 텍스트(예: 마케팅 문구, 소프트웨어 코드 등등) 및 이미지와 같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생성형AI 모델은 일관성 있는 글쓰기와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는 인간의 사고, 창의력,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던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기존 AI와 생성형AI의 서로 다른 역할은 각각 차별화된 사례에서 활용된다. 특히 금융 산업의 경우, 기존 AI는 예측 분석을 수행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생성형AI는 관련 보고서를 생성하여 거래 및 분석 책임부터 규정 준수 직무에 대한 결정적인 지원을 하여 과업 수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기존(전통적인) AI와 생성형AI 비교



2부. 생성형 AI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들

지난 2022년 딜로이트가 발간한 '금융산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규제 당국이 AI 규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원칙들(principles)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위험들을 검토했다. 그 원칙은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공정성(Fairness), 강건성(Robustness),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Privacy and Data Security) 등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들과 우려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생성형 AI의 부상에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차별적인 위험을 제기한다.

- ✔ **투명성 부족(Lack of transparency):** 생성형 AI 모델의 복잡성과 독점적인 정보로 인해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 모델의 투명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와 방법이 부족하여, 서로 다른 모델을 비교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 ✔ **차별과 편견(Discrimination and bias):** 생성형 AI는 훈련한 데이터의 패턴과 편견을 연관시키는 방법을 학습하여 차별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 ✔ **정확성 부족 및 환각(Lack of accuracy and hallucination):** 생성형 AI는 불안정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단순히 조작된 사실을 생성할 수 있다. 생성형 AI 모델에는 '객관적 진실'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며,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유해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도 있다.
- ✔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issues):** 생성형 AI 모델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훈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I가 그러한 저작권이 있는 자료와 상당히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 모델은 위조품이나 해적판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 ✔ **사기(Fraud):** 생성형 AI는 딥페이크와 합성 데이터를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기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3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

생성형AI의 등장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AP) 지역의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이전에 시행한 AI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기술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몇몇 규제 당국은 개별 조직과 업계 전반을 위한 모범 사례를 권고하기 위해 AI 가이드라인 및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 표(그림 2)는 AP 지역 관할권에서 AI를 규제하거나 AI 위험 관리에 대해 조언할 때 취하는 AI 원칙 수립, 지침 및 도구, 법률 도입, 국가 전략의 일부로서 AI 활용의 포함 등을 아우르는 일련의 접근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 AI 원칙:** AI 원칙은 여러 부문에서 AI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향후 AI 규제 및 법제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AI 위험에 대해 입법화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상당수 관할권에서도 AI 원칙을 도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AI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국가 차세대 AI 거버넌스 전문가 위원회(National New Generation AI Governance Expert Committee)가 '차세대 AI 거버넌스 원칙'을 발표했다.
- 지침 및 도구:** 일반적으로 지침과 도구는 AI 원칙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도하는 베리타스 컨소시엄(Veritas Consortium)은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투명성(FEAT) 원칙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5가지 백서를 발간했다. 컨소시엄은 금융서비스 회사의 FEAT 방법론 및 원칙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베리타스 툴킷(Veritas Toolkit) 버전 2.0을 개발했다. 버전 1.0에 비해 버전 2.0은 공정성 평가 방법론이 개선되었으며, 윤리성, 책임성, 투명성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포함했다. 2022년 5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를 입증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세계 최초의 AI 거버넌스 진단 프레임워크 및 툴킷인 '에이아이 베리파이'(A.I. Verify)를 론칭했다.
- 입법:**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관할권에서는 보험 부문에 대해 AI에 특화된 입법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와 베트남에서는 AI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 국가 전략:** AP 지역의 많은 관할권에서 AI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본토, 말레이시아가 포함된다. 그러나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에서는 아직 이 전략을 시행하거나 업계에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규제 및 입법 기관이 AI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접근 방식 사례들

AI 원칙

- ✔ **[호주]** 호주의 '인공 지능 윤리 프레임워크'는 책임감 있는 AI 솔루션을 안내하기 위해 고안된 자발적 원칙이다.¹ 이 원칙은 AI가 인간에게 유익하고,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며, AI 시스템 책임자가 시스템의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 **[홍콩특별행정구]**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2019년에 홍콩의 은행 부문에서 AI 사용에 관한 일련의 상위 원칙을 발표했다.² 또한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및 자문 플랫폼에 대한 7가지 주요 지침을 발표했다.³
- ✔ **[일본]** 경제산업성의 'AI 원칙에 대한 거버넌스 지침'은 AI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⁴ 이 문서는 2019년에 발표된 '인간 중심 AI의 사회적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원칙은 인간 중심, 교육/문해력, 개인정보 보호, 안전 보장, 공정한 경쟁,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혁신 등이다.
- ✔ **[대만]** 2023년 8월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금융 기관 AI 사용을 지도하기 위한 '금융 산업에서 AI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핵심 원칙 및 관련 정책'이라는 제목의 제안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는 대만의 'AI 행동 계획 2.0'과 글로벌 AI 지침을 바탕으로 했다. 이 초안에는 거버넌스, 인간 중심 가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보안,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아우르는 6가지 원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⁵

지침 및 도구

- ✔ **[싱가포르]** MAS가 주도하는 베리타스 컨소시엄은 공정성, 윤리, 책임성, 투명성(FEAT) 원칙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5개의 백서를 발간했다.⁶ 컨소시엄은 금융회사의 FEAT 방법론 및 원칙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베리타스 툴킷' 버전 2.0을 개발했다. 버전 2.0은 버전 1.0에 비해 공정성 평가 방법론이 개선되었으며 윤리, 책임성, 투명성에 대한 평가 방법론이 포함되었다.

입법

- ✔ **[중국]** 중국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법'은 중국 내 AI 사용을 규율하는 광범위한 국가 법률의 연장선에 있다.⁷ 중국의 '심층 합성 조항'도 AI를 둘러싼 규제の一部이지만, 특히 극도로 사실적인 이미지 또는 오디오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필리핀]** 필리핀은 '인공지능개발청(AIDA)의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⁸ AIDA는 기업이 필리핀에서 AI 기술을 개발 및 도입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국가 AI 전략 및 프레임워크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 ✔ **[한국]** 2023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국의 인공지능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이 된다.⁹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정부 승인 없이 누구나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high-risk) 인공지능을 분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베트남]** 2022년 6월에 새로운 '보험업법'¹⁰이 통과되어 보험업 활동에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보험사가 혁신적인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AI를 포함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가 전략

- ☑ [인도네시아] 'AI 국가 전략'은 인도네시아¹¹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이니셔티브인 '인도네시아 4.0 만들기'를 기반으로 한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AI, 로봇 공학 및 기술 중심의 인도네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며, 동시에 일본, 중국, 한국의 선도적인 기술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장려한다.
- ☑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는 '2021-2025 국가 AI 로드맵'¹²을 발표하여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6가지 전략과 함께 7가지 책임감 있는 AI 원칙을 제시했다.
- ☑ [태국] 태국에는 현재 AI 및 머신러닝과 관련된 전용 법률이 부재하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AI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포함될 국가 AI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들도 생성형AI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U 인공지능법(AI 법)'은 EU 내의 AI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유럽위원회(EC)가 제안한 법안으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EU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AI 법은 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AI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다루는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비해 미국은 AI 규제에 대해 보다 분절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주 단위의 법률 및 규제 구조로 인해 연방 차원에서 생성형AI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거나 제안된 바 없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AI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다른 주들은 앞으로 등장할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정도다.



그림 3. AI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규제 당국이 취한 입법 및 규제 접근 방식



EU

- ✔ '인공지능법'(AI 법) 초안이 2023년 12월 8일 합의되었으며, 2024년 중에 유럽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⁴
- ✔ AI 법은 EU 내 모든 국가의 AI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AI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을 만들고, EU의 프레임워크를 글로벌 벤치마크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AI 위험 등급은 아래와 같은 4단계로 나뉜다:
- ✔ **금지된 AI 시스템:** '기본권 침해'로 인해 특별히 금지된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공공장소의 실시간 생체 인식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이 포함된다. 또한 AI 법은 성인이나 어린이의 취약점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해를 입히는 시스템도 금지하고 있다.
- ✔ **고위험 AI 시스템:** EU 제품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사용되거나 AI 법의 '부록 III'에 나열된 시스템. 고위험 AI 시스템은 AI 법에 따라 광범위한 규제와 폭넓은 의무 적용을 받는다.
- ✔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인간이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은 반드시 투명성 의무를 충족하고 사용자에게 기계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 ✔ **저위험/최소위험 AI 시스템:** 스팸 필터 또는 AI 지원 비디오 게임과 같은 단순한 AI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에는 어떠한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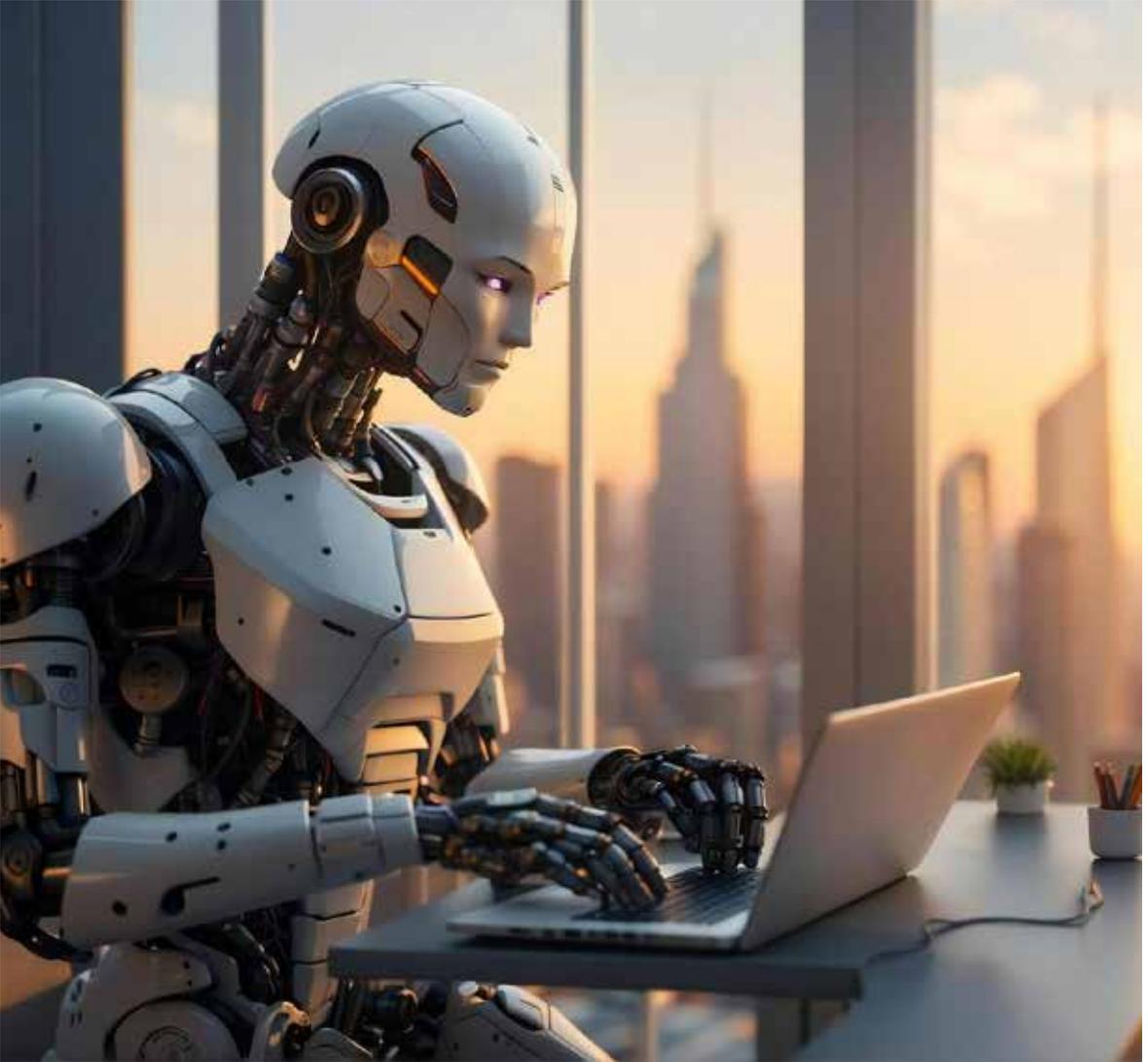
* 역자 주. EC 발표문에서는 Minimal risk, High-risk, Unacceptable risk, Specific transparency risk 등의 4단계 위험으로 분류함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6473



미국

- ✔ AI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률은 연방 주마다, 그리고 산업 분야마다 다르다.
- ✔ 콜로라도와 같은 주는 2023년부터 보험에서 AI 사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 ✔ 미국 내 20개 이상의 주에서는 아직 AI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
- ✔ 2022년 10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다음 5가지 원칙에 기반한 AI 권리장전의 청사진¹⁵을 발표했다:
- ✔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 ✔ 알고리즘의 차별 방어
- ✔ 데이터 프라이버시
- ✔ 고지 및 설명
- ✔ 대체 선택지

* 이 청사진은 규제가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다. 다만 백악관(OSTP)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AI 사용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할 뿐이다.



규제 당국의 과제와 고려 사항

생성형AI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새로운 규제 시행이 금방 비효율적인 구식의 규제로 치부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AI가 금융산업에 불러올 도전과 위험에 대처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규제 당국의 새로운 과제이다.

AI 기술에 적합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충분한 인재 및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일부 규제 당국은 AI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법 기관과 규제 당국도 이로 인해 규제의 감독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AI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관련 법률 및 규제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마다 AI 활용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보안, 공정성, 소비자 보호 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려면 AI 원칙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생태계의 모든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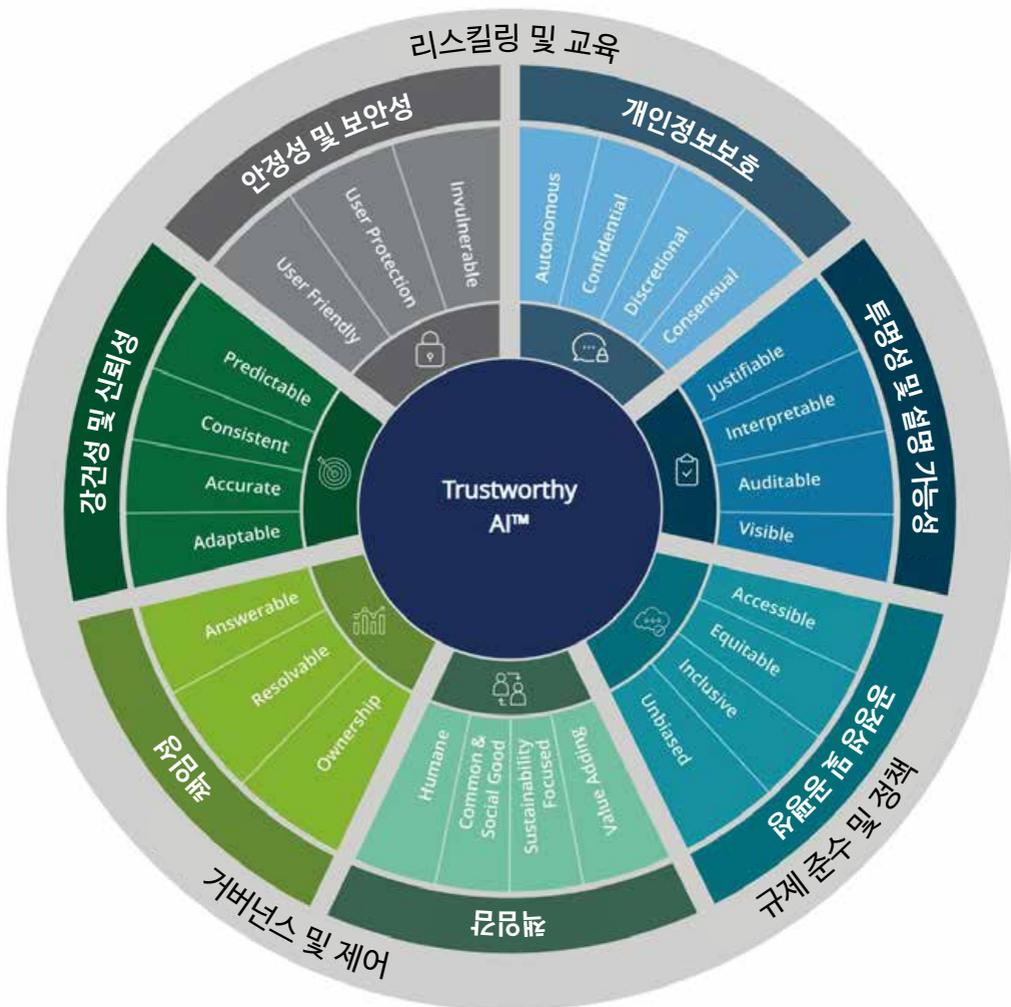
규제의 표준화를 위한 국경을 초월한 관리 프레임워크, 공동 연구 및 모범 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규제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인사이트에 기반할 수 있고, 또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산업 성장과 사회적 안전장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부. 실무에 적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

생성형 AI는 기존 AI에 비해 AI를 활용하는 금융 회사에 더욱 까다로운 위험 관리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AI 규제 및 법률이 아직 개발 또는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금융 회사는 글로벌/지역별 AI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자체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향후 AI 규제 준수, 사용자 보호 강화, AI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적인 구현 확대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활용 사례에서 '딜로이트의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를 통해 잠재적인 AI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4. 딜로이트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¹⁶



혜택	실무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		
	쟁점/기회	생성형AI의 도움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를 위한 고려 요소
비용 절감	리서치 기반 보고서 생성(KYC)		

조직은 AI를 통해 운영을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성 향상, 인력 활용도 개선, 규제 준수 실현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객 온보딩에는 고객확인제도 (KYC) 표준을 준수하는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 프로세스에는 경제 분석, 주식 조사, 부정적 미디어 확인, 신규 잠재 고객 실사 등 고객에 대한 광범위한 수작업 조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인적 자원과 시간이 상당히 소모된다.

생성형AI는 기존 검색 엔진이나 생성형AI 채팅 기반 도구를 사용하여 초기 데이터 검색 및 메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가치를 더한다. 또한 메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 관계 관리자를 위한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정보에 좀더 쉽게 접근하고 시기적절한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업무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생성형AI를 활용할 때는 민감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모델, 기초 데이터 및 참조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규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강건성 및 신뢰성] 검색 및 분석에 생성형AI를 사용하면 관련 정보가 누락되어 메타 분석 및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AI를 통한 향상된 고객서비스 지원

고객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금융회사에게 고객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고객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디지털화로 인해 담당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고객이 고도로 개인화된 경험을 기대할 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생성형AI는 초개인화된 경험과 인간적인 응대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접점을 향상한다. 기존 챗봇과 달리 공감을 제공하고, 계약을 요약하며, 미묘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LLM을 기반으로 하는 이 기술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옵션을 제공하여 챗봇의 유용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한다. 향상된 고객 서비스는 충성도, 평판, 효율성으로 이어져 기업은 운영을 확장하고, 복잡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금융회사는 민감한 정보의 안전한 전송, 저장, 접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최종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회사는 고객 정보의 전달과 처리과정, 생성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혜택	실무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		
	쟁점/기회	생성형AI의 도움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를 위한 고려 요소
실행 속도 향상	보험금 청구 처리의 무결성 보장		
<p>자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조직은 운영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p>	<p>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처리 중에 대리인은 피보험 사건을 평가하고 손해 비용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도구가 거의 없다.</p>	<p>생성형AI는 고객의 대화, 문서, 미디어를 활용하여 피해를 가상으로 복제할 수 있게 하여 대리인이 정확한 피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진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관련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처리 속도와 평가 속도가 빨라지며, 잠재적인 사기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불의 책임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p>	<p>[강건성 및 신뢰성] 손상 시각화 (damage visualization)는 고도의 정확성을 필요로 하며 잘못된 생성형AI 출력결과는 보험료의 과오납 또는 과소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p> <p>[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보험금 청구 담당자가 고객에게 생성형AI의 산출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보험금 청구 처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p>
신용 한도 배정			
<p>기존AI 기반 신용점수는 신용 대출 절차에 개시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대리인)이 그 근본적인 방법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점수가 완전하게 통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신용 한도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p>	<p>생성형AI는 대출 진행 절차 동안 신용 한도를 추정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간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차용해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응답을 제공한다. 기존 AI에 비해 인간과 유사하고 해석 가능한 의사 결정문을 생성하여 인간이 수행한 감사의 투명성을 향상한다. 인간의 정당화 작업이 감소되어 대출 처리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조직의 확장이 용이해진다.</p>	<p>[개인정보보호] 신용한도 처리 과정에서 광범위한 고객 금융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개인정보보호 표준 및 적절한 정보 공개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p> <p>[공정성 및 공정성] 과거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된 신용 한도 배정 모델에는 보이지 않는 편견이 포함되어 있어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p>	
예측 거래 알고리즘			
<p>전략적 거래를 위해 시장을 분석하려면 기술적인 데이터, 뉴스, 업계 보고서에 실시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의 궤적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신중한 구매와 판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처럼 방대한 양의 정보를 소비해야 한다. 이 분석 과정의 수동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성 때문에 금융 회사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p>	<p>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AI는 고급 헤징 전략과 향상된 시장 심리 분석을 생성하여 투자의 실시간 위험 완화를 지원한다. 이는 시장 예측을 가속화하고 분석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거래량을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유도하는 동시에 위험을 완화한다.</p>	<p>[강건성 및 신뢰성] 생성형AI는 분석가들이 시장을 더 잘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결과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릴 위험이 남아 있으며, 이는 불완전한 결과로 이어진다.</p> <p>[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생성형AI 산출물에 대한 인간의 검증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이해 관계자들은 산출물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과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p>	

혜택	실무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		
	쟁점/기회	생성형AI의 도움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를 위한 고려 요소

복잡성 감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코드 어시스턴트		
<p>복잡한 데이터 소스의 패턴을 인식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석을 통해 의사 결정이 향상된다.</p>	<p>금융 회사들은 AI 도구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데이터 변환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력의 여유가 생기고 사내 비용이 절감되지만 이러한 노력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실패 및 오류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요소도 포함된다.</p>	<p>개발팀은 책임성을 가진 코딩, 디버깅 및 문서화 작업에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작업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소프트웨어 구축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API, ETL,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프론트 엔드 코드를 신속하게 작성하는 등 안정적이고 배포 가능한 버전에 더욱 빠르게 도달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p>	<p>[강건성 및 신뢰성] 프로그래밍 관련 작업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하려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용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p> <p>[책임감]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훈련 데이터는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p> <p>[안전성 및 보안성] 생성형AI 사용으로 독점적인 전용 코드가 노출되어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p> <p>[책임성] 사람이 업무의 중추(예: 코드 검증 및 디버깅)에 부재할 경우 중대한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문서화 및 통신 표준이 필요하다.</p>

전사적인 데이터 검색 및 접근

<p>다양한 위치에 걸친 복잡한 데이터 스토리지로 인해 금융 회사의 비효율적인 쿼리가 발생하여, 특히 인수합병 이후 불안정한 통찰력, 위험 증가 및 고객 불만이 발생한다.</p>	<p>생성형AI는 사용자 쿼리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마이닝, 구조화된 분석 및 신속한 통찰력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기업 전체 데이터 쿼리의 복잡성을 줄이고 기존 방식을 넘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인력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p>	<p>[책임감] 데이터 접근을 확대할 때 조직은 민감한 비즈니스 데이터 접근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제어를 보장해야 한다.</p> <p>[강건성 및 신뢰성] 금융 회사는 생성형AI의 환각 가능성과 신뢰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부정확한 통찰력과 시장 수준의 결과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p> <p>[개인정보보호] 조직은 중요한 데이터를 취급할 때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교육 및 테스트 세트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모호하게 하며, 보호된 정보의 잠재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델을 평가해야 한다.</p>
---	---	--

혜택 **실무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

쟁점/기회 **생성형AI의 도움**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를 위한 고려 요소**

복잡성 감소 **레그봇**

복잡한 데이터 소스의 패턴을 인식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석을 통해 의사 결정이 향상된다.

금융서비스 부문은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들은 다양한 규제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탐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인간의 해석이 달라 잠재적인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생성형AI는 규정과 지침을 요약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디렉토리를 만든다. 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효율성을 향상하고 규정 준수에 대해 적시 대응하며 금융서비스 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규정을 일일이 탐색하는 일손 부담을 줄인다.

[강건성 및 신뢰성] 모호한 데이터와 역사적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생성형AI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책임성] 규제 요구 사항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인간의 해석이 필요하다.

변화된 참여 방식 **가상 은행 경험**

실현 기술을 통해 제품이 고객과 인간미를 지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계와 인간 언어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고객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원격 거래를 점점 더 선호하고 있어 금융서비스 회사들은 자동화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 챗봇은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지만, 기존 도구는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대화와 옵션으로 인해 다양한 대화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상 공간의 생성형AI는 금융 기관과 VR 기반의 개인맞춤형 고객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고객 문의에 대해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 직원을 추가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러한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은 고객이 선호하는 언어로 보다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 실시간 데이터 접근은 서비스 품질과 속도를 향상한다.

[책임성] 챗봇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인간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프로세스에 인간을 참여시키고 역할과 임무를 문서화함으로써 책임감을 증진한다.
[공정성 및 공정성] 챗봇의 훈련과 정보 전달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에는 일부 소수인종 고객 그룹 또는 언어의 의미론적 결함과 같은 잠재적 편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고객 인상 및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챗봇의 대화 능력을 고려하여 고객이 챗봇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리고 입력 및 정보가 저장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핵심		실무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		
		쟁점/기회	생성형 AI의 도움	신뢰할 수 있는 AI 프레임워크를 위한 고려 요소
혁신 강화	<p>생성형 AI는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기대 부응과 동시에 더 많은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다.</p>	<p>불완전하고 제한된 데이터의 제공 등 데이터 문제는 금융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데이터 분석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p>	<p>누락된 데이터는 금융회사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해결 과제이다. 생성형 AI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 세트 내에서 기본 패턴을 학습하여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 테스트 및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할 수 있다.</p>	<p>[공정성 및 공평성] 합성 데이터의 생성에 있어 과거 데이터 축적으로 인해 특정 커뮤니티나 사회경제적 그룹을 과소 또는 대표로 평가하는 등 의도하지 않는 편향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p> <p>[강건성 및 신뢰성] 생성형 AI로 생성된 합성 데이터는 범위와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 생성형 AI로 생성된 합성 데이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데이터 신뢰성이 손상되어 모델 출력 및 훈련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p>
개인 맞춤형 마케팅				
	<p>지역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이해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규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들은 준법 마케팅 기능을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한다.</p>	<p>생성형 AI는 금융회사가 올바른 어조 및 단어와 문화를 참조해 맞춤형 공정한 마케팅 자료를 만들어 지역차이에 따른 규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개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p>	<p>[공정성 및 공평성] 생성형 AI 교육 데이터의 보이지 않는 편향으로 인해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마케팅 자료가 발생할 수 있다.</p> <p>[강건성 및 신뢰성]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마케팅에 있어 AI의 허위 진술 및 잠재적인 규제 위반의 위험 때문에 인간의 검증이 중요하다.</p>	
강화된 신뢰	<p>사기, 사이버 공격 및 규제 위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투명성을 보장한다.</p>	<p>기업의 위험 관리는 신용, 투자, 사기,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무적인 규제 요건이다 있다. 특히 전세계에 수백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대형 금융 기관의 경우 신용 확인, 신용 평가 등 데이터 출처가 다양하여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p>	<p>관련 데이터 및 상황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회사가 규정 및 업계 표준 준수가 쉬워진다. 강건한 실시간 위험 평가를 통해 조직은 새로운 위험 및 추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보안성이 높은 AI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p>	<p>[공정성 및 공평성] 데이터 소스의 편향성은 생성형 AI의 불공정한 고객 위험 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p> <p>[책임성] 생성형 AI가 위험을 간과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기계가 책임을 질 수 없다.</p> <p>[안전성 및 보안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 접근이 필요한 모델을 활용할 때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p>

주요 결론

생성형AI는 금융산업에서 디지털화의 진전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I 기술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AI 기술의 채택을 고려하는 금융 회사는 AI의 위험을 이해하고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아직 AP 지역 전체에서 AI 규제 또는 법률 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지만, AI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했거나 채택을 고려 중인 금융 회사는 향후 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 향상을 위해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 회사는 생성형AI 애플리케이션이 생산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생성형AI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하는 금융 회사는 AI 관련 위험과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기존 위험 선호도 및 전반적인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금융 회사는 생성형AI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안전, 건강 및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정 애플리케이션 위험이 더 높은 경우 더 많은 인간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 회사는 금융서비스 취약 고객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예: 학력, 소득 또는 연령)을 파악하고, 생성형AI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한 의도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고객 편향 및 차별을 피해야 한다



생성형AI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고객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하는 내부 부서와 외부 업체에 대한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립 및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생성형AI의 입출력물에 대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금융 회사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 또는 쿼리가 공개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하며, 따라서 지적 재산의 부주의한 노출 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생성형AI의 도입을 계획하는 금융회사는 관련 AI 인재 확보와 함께 AI 기술의 기본 개념, 비즈니스 배치 방식, 관련 주요 위험, 각각의 책임 소재에 대해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 부문은 규제 및 입법 기관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업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규칙 제정을 촉진하는 한편 AI의 미래 경로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Contacts

Key Contacts [Generative AI]



Mark Woodley
Partner
Financial Crime Offering Leader
Asia Pacific
marwoodley@deloitte.com



Dr. Elea Wurth
Lead Partner
Trustworthy AI
Australia
ewurth@deloitte.com.au



Dishell Gokaldas
Partner
Audit and Assurance
Singapore
dgokaldas@deloitte.com



Oz Karan
Partner
RFA Trustworthy AI Leader
United States
okaran@deloitte.com

Key Contacts [Asia Pacific Centre for Regulatory Strategy]



Seiji Kamiya
ACRS Executive Sponsor
Asia Pacific Risk Advisory Regulatory
and Legal Support Leader
seiji.kamiya@tohmatu.co.jp



Nai Seng Wong
SEA Co-lead
Partner
SEA Regulatory Strategy Leader
nawong@deloitte.com



Sean Moore
Australia Co-lead
Partner
AU Risk Advisory FS Industry Lead
semoore@deloitte.com.au



Shinya Kobayashi
Japan Co-lead
Managing Director
Financial Industry Risk &
Regulation, Japan
shinya.kobayashi@tohmatu.co.jp



Jaramie Nejal
Operations Lead
Director
Financial Industry Risk &
Regulation, Australia
jnejal@deloitte.com.au

Contributors

Ningxin Su

Contributing Author
Manager, Hong Kong

Andrew Neilson

Contributing Author
Senior Analyst, Australia

Jennifer Martiniak

Contributing Author
Associate, Singapore

Cathy Zhang

Contributing Author
Graduate, Australia

Acknowledgments

Nicola Marshall

Partner
Australia

Sam Walsh

Partner
United Kingdom

Matthew Gracie

Managing Director
United States

Patrycja Grzesznik

Associate Vice President
United States

Gerry Chng

Executive Director
Singapore

Kedarnath Vallaboina

Senior Manager
Singapore

딜로이트 금융산업 통합서비스 그룹 (One Financial Service Industry)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금융산업 전문가들은 은행, 보험, 증권, 캐피탈, 신용카드,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에 대한 축적된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ader's



민홍기 대표

딜로이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대표

Tel: 02 6676 2319

Email: homin@deloitte.com



장형수 파트너

금융산업 성장전략 부문 리더

Tel: 02 6676 1168

Email: hyuchang@deloitte.com



신병오 파트너

신사업개발센터 리더

Tel: 02 6676 1225

Email: byoshin@deloitte.com

금융산업 Service Line별 전문가



조태진 파트너

딜로이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 회계감사본부

Tel: 02 6676 3322

Email: tajo@deloitte.com



안상혁 파트너

딜로이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 딜로이트컨설팅

Tel: 02 6676 3625

Email: sanghyan@deloitte.com



전중무 파트너

딜로이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 리스크자문본부

Tel: 02 6676 2921

Email: jojun@deloitte.com



이동영 파트너

딜로이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 재무자문본부

Tel: 02 6676 2304

Email: dongylee@deloitte.com



김철 파트너

딜로이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 세무자문본부

Tel: 02 6676 2931

Email: cheolkim@deloitte.com

딜로이트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전문 리더

딜로이트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전문팀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고객들의 전략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딜로이트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전문팀은 국내외 기업의 전략수립, 회계감사, 재무자문, IT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우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ntact



김우성 파트너

Technology Strategy & Transformation 리더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 6099 4670
Email: wooskim@deloitte.com



안상혁 파트너

디지털부문 리더/금융산업 총괄리더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 6676 3625
Email: sanghyan@deloitte.com



박지숙 파트너

금융 IT, 오퍼레이션 리더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 6676 3722
Email: jisukpark@deloitte.com



장지영 파트너

Tech Strategy 부문 파트너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 6676 3956
Email: jiyoung@deloitte.com



강기식 파트너

Lead Architect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 6676 2039
Email: gikang@deloitte.com



주형열 파트너

반도체 CoE 리더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 6676 3750
Email: hjoo@deloitte.com



최호계 파트너

Technology Sector 리더 | 감사본부

Tel: 02 6676 3227
Email: hogchoi@deloitte.com



박형곤 파트너

TME Sector 리더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 6676 3684
Email: hypark@deloitte.com



조명수 파트너

Digital Finance & Operation 리더

Tel: 02 6676 2954
Email: mjo@deloitte.com



박권덕 파트너

TME Sector 리더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 6676 3567
Email: gwapark@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본부 리더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연구원

김사현 Director

sahe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